

效率성과 민주성에 대한 公務員의 態度에 관한 研究*

黃 聖 敦

◁目 次▷

第Ⅰ章 序 論	第2節 分析模型
第1節 研究意義 및 目的	第3節 假說의 定立
第2節 研究對象 및 範圍	第Ⅳ章 調査와 假說檢證 및 類型分析
第3節 研究方法	第1節 尺度의 構成
第Ⅱ章 理論的 背景	第2節 調査節次와 標本
第1節 效率性	第3節 假說檢證
第2節 民主性	第4節 效率성과 民主性에 대한 態 度의 類型分析
第Ⅲ章 模型作성과 假說의 定立	第Ⅴ章 結論: 假說의 函數式의 提示
第1節 變數의 設定	

第Ⅰ章 序 論

第1節 研究意義 및 目的

1. 現狀 認識 및 目的

신속한 發展을 第1의 國家目標로 設定·推進하고 있는 韓國을 비롯한 여러 開發途上國家에 있어 「民主性」과 「效率性」이라는 兩大行政理念間에 상당한 程度的 葛藤이 나타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事實이다¹⁾.

이러한 兩大行政理念間의 葛藤의 問題는 비단 開發途上 國에서만 제기되는 것은 아니다. 能率指

向의이고 沒人格의이며 機械的인 過去의 웨버의 官僚制는 멀지 않아 곧 人間指向의이고 융통성 있는 새로운 類型의 組織體系에 의해 代置될 것이 라는 W. Bennis의 主張²⁾을 비롯하여 古典的 管理方式에 반기를 들고 組織의 民主化에로의 轉向을 주장하는 新古典的 組織論者나 1970年代의 新行政學(the New Public Administration)³⁾의 主唱者들도 바로 이러한 效率성과 民主性이라는 兩大理念間의 振幅 중 어느쪽을 지향해야 하느냐 하는 問題를 해결하려고 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規範的으로 보면 民主성과 效率性이라는 兩大行政理念은 그 중 어느 것도 경시할 수 없는 것

* 本 論文은 1981年 1月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碩士學位論文으로 제출되었던 것인데, 원래는 200 頁 原稿紙 500여매에 달하는 分量이었으나 지면관계상 상당부분이 제외되었거나 요약되었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논의가 불충분하거나 논리가 비약되어 있음을 부언해 둔다.

(1) 吳海均 「第4共和國 行政體制分析」, 省谷論叢, 第10輯, 1979, pp.407-412.

(2) Warren G. Bennis, *Changing Organization*, (New Delhi: Tata McGraw-Hill Publishing Co. L.d., 1966), pp.3-15.

(3) 〇 에 대해서는 Frank Marini, *Toward a New Public Administration: The Minnowbrook I Perspective*, (Scanton: Chandler Publishing Company, 1971)과 Dwight Waldo, (ed.) *Public Administration in a Time of Turbulence*, (N.Y.: Chandler Publishing Company, 1971)을 참조.

이라고 하겠는데 바로 이 점과 公務員의 兩理念間의 現實의 不調和의 問題에 있어 重要變數가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결국 “어떻게 하면 民主性과 效率性에 대한 公務員의 態度를 調和시킬 수 있는나” 하는 處方的 問題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既存研究의 미비성과 理論的 성급함에 따른 主觀性 介入의 우려를 감안하여 本研究에서는 “效率性과 民主性에 대한 公務員의 態度는 어떤 狀態에 있으며, 여기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變數는 무엇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民主性指向態度와 效率性指向態度間에는 어떠한 相關關係가 있는가?”하는 實證的 問題를 제기한다.

2. 研究目的

이러한 現狀感覺과 問題認識을 바탕으로 한 本研究의 구체적 目的은 다음과 같다.

가. 既存의 關聯文獻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民主性과 效率性에 대한 操作的 定義를 내린다.

나. 公務員의 態度研究에 應用할 수 있는 心理學에서의 態度에 관한 理論 및 接近法을 體系的으로 整理·記述한다.

다. 民主性과 效率性에 대한 態度의 現實的 狀態와 不調和의 程度를 分析하기 위한 「態度類型分析模型」을 作成한다.

라. 관련된 기존의 尺度를 참고하여 操作화된 效率性과 民主性에 대한 公務員들의 態度를 測定하기 위한 尺度를 作成한다.

마. 效率性과 民主性에 대한 公務員의 態度에 영향을 미치는 變數들을 假定하고 그것을 效率性과 民主性에 대한 公務員의 態度에 대한 分析에 알맞게 分類·尺度화한다.

바. 이러한 一連의 理論的 準備作業을 통해 效率性과 民主性에 대한 公務員의 態度와 各 變數間에 대한 假說을 定立하고 서울特別市를 대상으로 한 設問調査를 토대로 科學的으로 檢證한다.

사. 최종적으로는 그러한 檢證을 토대로 하여 效率性과 民主性에 대한 態度의 內的 變數와 有意한 相關이 있다고 생각되는 變數들을 選定하여 그들 變數間의 關係에 관한 假說的 函數式을 도출한다.

3. 研究의 意義

本研究의 意義는 크게 理論的 側面과 實用的 側面에서 찾을 수 있겠는데 먼저 理論的 意義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즉 그동안 集中的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公務員의 態度를 보다 체계적으로 分析하려고 한다는 점과 民主性과 效率性에 대한 態度를 操作化하여 測定可能하게 하려고 한다는 점, 그리고 民主性과 效率性에 대한 公務員의 態度의 類型을 分析할 수 있도록 하는 態度類型分析模型을 제공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本研究의 實用的 意義는 民主性과 效率性間의 不調和狀態로부터 탈피하여 兩者가 적절히 조화된 行政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行政組織의 管理戰略에 先行되어야 할 現實把握의 科學的 基礎資料를 제공하려는 데 있다.

第2節 研究對象 및 範圍

1. 研究對象

本研究는 研究對象으로서 서울特別市를 選定하기로 하는데, 그 이유는 中央部處에 비해 組織規模가 작고, 中央政府의 各部處가 서울特別市 本廳의 경우 各局으로서 存在하고 있다는 점과 中央과 道市郡의 關係는 서울特別市의 경우 本廳·區廳·洞의 關係로서 存在하고 있어 서울特別市를 調査하더라도 中央行政府의 경우로 유추해석할 수 있을 것이며, 調査의 經濟性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있다.

2. 研究範圍

本研究는 民主性과 效率性에 대한 서울特別市 公務員의 態度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인데, 특히 效率性과 民主性에 대한 態度의 概念的 操作化, 態度의 實態를 알기 위한 態度類型分析模型의 提示, 그리고 效率性과 民主性에 대한 態度와 그것에 관련된 變數間의 關係와 差異에 대한 理論的 假說定立 및 그에 대한 檢證을 하는데 限하게 된다.

따라서 規範的 次元에서의 구체적 代案의 提示나 態度形成 및 變化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本研究의 範圍에서 벗어나게 된다.

第3節 研究方法

本研究에서 사용된 資料는 關係文獻에 대한 分析과 設問調査 및 關係公務員과의 面接을 통해

수집되었다. 또한 設問紙는 3級~5級の 關聯公務 240員名에게 配布하여 有效한 것은 195部(81.3%)가 回收되었다. 그리고 設問紙의 配布 및 回收 期間은 1980年 10月 13日부터 10月 30日까지였다.

그리고 設問紙에 의해 수집된 資料는 완전히 KIS의 C.D.C. (Control Data Corporation) CYBER 74 Computer System을 이용하여 처리하였으며, 프로그램 作成은 SPSS(Statistical Packages for the Social Sciences)를 참조하여 이루어졌다.

設問紙의 內容은 크게 社會背景의 變數와 組織 變數에 관한 것, 그리고 「效率性指向態度」를 測定하기 위한 17個 問項, 民主性指向態度를 測定하기 위해 關聯學者들의 것을 인용하여 모두 5點 尺度로 하여 作成되었는데, 이러한 尺度作成과 기타 研究節次와 分析方法은 第IV章 第2節에서 詳論하기로 한다.

第II章 理論的背景

行政體制가 形成·發展하기 위해서는 構成員과

分化된 役割 및 技術 그리고 資源 이외에도 그 體制가 指向하여야 할 궁극적 目標가 누구에 의해서든 계속 제시되어야 하고, 狀況에 맞도록 變化되어야 함은 再言을 要하지 않는다.

이때의 궁극적 目的을 行政理念이라고 하는데 보다 구체적으로는 行政發展의 評價基準이나 指針이 되는 것으로 定義되기도 하며⁽¹⁾ 體制의 正統性(legitimacy)의 創出根據로서 논의되기도 한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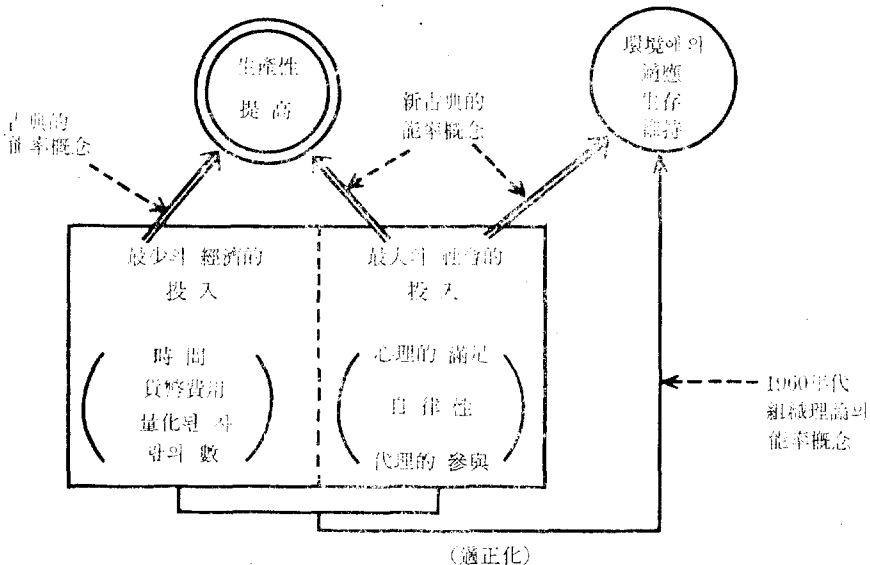
本章에서는 먼저 關聯學者들의 見解를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各理念의 要素概念을 抽出하기로 하며 최종적으로 效率性과 民主性간의 關係에 대해 언급하기로 한다.

第1節 效率性

效率性이라는 用語는 能率性和 效果性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인데, 行政理論史의 出現順序上 能率性에 대해 먼저 언급하기로 한다.

① 能率性에 대한 關聯學者들의 見解 요약

能率性에 대한 關聯學者들의 見解를 理論史의 側面(古典理論, 新古典理論, 1960年代 理論)에서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圖 1〉 能率性 概念의 圖式化

(1) 朴東緒, 韓國行政論, (서울: 法文社, 1971), p. 65.

(2) Edward Shils and Harry M. Johnson, "Ideology' Concept and Function of Ideology," Encyclopa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 7, 1968, pp. 66-85.

즉 <圖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古典理論에서의 能率性, 즉 機械的 能率性의 概念은 生産性的 提高를 위한 時間·貨弊費用·量化된 사람의 數 등의 經濟的 投入의 最小化를 내용으로 한다고 볼 수 있으며 古典的 意味의 能率性에 대해 이러한 범주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學者로서는 F. W. Taylor 와 H. Emerson, L. W. Porter,⁽³⁾ H. A. Simon 와 J. G. March,⁽⁴⁾ E. J. Mc Cormic 와 J. Tiffin,⁽⁵⁾ C. I. Barnard⁽⁶⁾ 등을 들 수 있다.

新古典理論에서의 能率性, 즉 社會的 能率性의 概念은 古典理論에서의 生産性 提高 또는 環境에 대한 組織의 反應, 生存·維持力 向上을 위한 構成員의 心理的 滿足, 自律性 代理的 參與 등의 社會的 投入의 最大化를 내용으로 한다고 볼 수 있으며 新古典的 意味의 能率性에 대해 이러한 범주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學者로서는 C. I. Barnard,⁽⁷⁾ P. Selznick,⁽⁸⁾ B. R. Clark,⁽⁹⁾ 吳錫泓⁽¹⁰⁾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1960年代 行政理論에서의 能率性의 概念은 環境에의 反應·生存·維持라는 組織의 目標達成을 위한 經濟的 投入과 社會的 投入의 適正化를 내용으로 한다고 볼 수 있으며, 1960年代 組織理論에서의 能率性에 대해 이러한 범주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學者로서는 W. G. Bennis⁽¹¹⁾와 L. W. Porter⁽¹²⁾ 등을 들 수 있다.

② 效果性에 대한 關聯學者들의 見解要約

效果性의 概念을 目標의 達成度(the degree to which an organization realizes its goals; the degree of goal attainment)로 規定하는데는 學者들간에 대체적인 合意가 이루어진 듯하다.⁽¹³⁾ 그러나 效果性의 內容, 즉 達成하려고 하는 目標의 內容에 대해서는 學者들마다 견해가 상당히 다양하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베니스(Bennis)의 경우에는 環境과의 갈등속에서의 組織의 生存維持를 이룩하는 것이 組織의 目標이라고 본다.⁽¹⁴⁾

리커트(Likert)는 組織의 目標을 力量(Competence)의 增進으로 보며, 그 內容으로서 問題解決力量, 決定力量, 情報蒐集, 分析力量, 對人關係의 力量, 그리고 그외의 各 組織活動에서의 力量 등을 지적하고 있다.⁽¹⁵⁾

카츠(katz)와 카안(kahn)은 觀點을 약간 달리 하여 效果性을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組織外部로부터 組織으로 되돌아오는 收益을 極大化하는 것(the maximization of return to organization by all means)⁽¹⁶⁾으로 파악함으로써, 效果性은 組織內 過程上에서의 經濟性과 技術性을 의미하는

- (3) L. W. Porter, et. al., *Behavior in Organizations* (Tokyo: McGraw-Hill Kogakusha, Ltd., 1975). pp. 282-283.
- (4) H. A. Simon and J. G. March, *Organizations*, (N.Y.: Wiley, 1958), pp. 23-24.
- (5) E. J. Mc Cormic and J. Tiffin, *Industrial Psychology*,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Ltd., 1960), p. 32.
- (6) Chester I. Barnard, *The Functions of the Executiv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38) J. G. March, *Handbook of Organizations*, (Chicago: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mpany, 1965), p. 1172에서 再引用.
- (7) C. I. Barnard, *op. cit.*
- (8) P. Selznick, *TAV and the Grass Roots*,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46)
- (9) B. R. Clark, *Adult Education in Transition*,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56)
- (10) 吳錫泓, 「組織內의 人間研究」, 行政論叢, 第17卷 第1號,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1979, pp. 4-5; —, 人事行政論, (서울: 博英社, 1976), p. 59.
- (11) W. G. Bennis *Changing Organizations*, (New Delhi; Tata McGraw-Hill Publishing Company Ltd., 1966), p. 17, p. 37.
- (12) L. W. Porter, *op. cit.*, pp. 283-284.
- (13) Amitai Etzioni, *Modern Organizations*, (N.J.; Prentice-Hall, Inc., 1964), p. 8.
- (14) Warren G. Bennis, *op. cit.*, p. 37.
- (15) Rensis Likert, *New Patterns of Management*, (Tokyo; Kogakusha Company, Ltd. 1961), pp. 16~172.
- (16) Daniel Katz and Robert L. Kahn, *The Social Psychology of Organizations*, (N.Y.; Wiley and Sons, Inc., 1966), p. 161, p. 170.

能率성과는 달리 組織外部와의 關係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¹⁷⁾

4. 效率性 概念의 操作的 定義

能率性 + 效果性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에 입각해 볼 때, 效率性은 가장 能率的 方法으로 組織의 目標을 達成하는 組織의 活動이며, 그러한 組織의 產出이 궁극적으로는 組織의 目標을 긍정적으로 지향하는 狀態라고 定義할 수 있다.

이러한 定義에 입각하여 本 研究에서의 效率性 概念의 要素를 中心으로 概念의 操作化를 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業務處理의 計劃性
- ② 業務處理의 節次性
- ③ 業務處理의 正確性
- ④ 業務處理의 積極性
- ⑤ 業務處理의 原則性
- ⑥ 時間費用의 最小性
- ⑦ 目標의 明確性과 그 達成
- ⑧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과 情報의 강조
- ⑨ 決定의 一方의 신속성과 指示의 詳細性
- ⑩ 統制의 嚴格性

第 3 節 民主性

1. 民主性에 대한 關聯學者들의 見解要約

行政에서의 民主性의 概念을 組織內的인 것과 組織外的인 것으로 大別하여 각각에 대한 主要學者들의 見解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組織內的 民主性

組織內的 民主性이라 함은 주로 1960年代의 진보적 經營學者들과 1970年代의 新行政學의 主張자들이 주장하는 것으로서, 組織內部的 管理方式 및 組織構造에서의 民主性을 의미하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여기서 問題가 되는 것은 民主性의 內涵이 되겠는데 이에 대해서는 論者들마다 다양한 見解를 피력하고 있으나 經營內的, 組織內的인 民主性에 대해서는 W.G. Bennis와

P.E. Slater의 見解를, 新行政學의 立場에서의 組織內的 民主性에 대해서는 R. Biller, D. Waldo, F. Marini의 見解를 中心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베니스(Bennis)와 슬래터(Slater)는 組織에 있어서 民主主義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과거의 독재적인 형태의 組織은 技術과 社會가 加速적으로 變化하고 있는 시기에 存續하기 위한 適應性(adaptability)과 융통성(flexibility)이 특히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組織에서의 民主性을 다음과 같이 定義한다.⁽¹⁸⁾

「組織에서의 民主性이란 組織內에서의 階級과 權力에 관계없이 충분하고 자유스러운 意思傳達를 하고, 強制보다는 오히려 衆志(consensus)를 모으는 것에 의존하며, 技術的인 知識과 能力(technical knowledge and competence)에 근거한 影響을 받아들이며, 業務指向의 行爲(task-oriented acts)뿐만 아니라 感情의 表現(emotional expression)까지도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며, 基本的으로 人間的 偏見(human bias)을 가지고 있는 價値體系이다.

한편 公共組織에 있어서의 民主性의 問題가 체계적으로 된 것은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1970年代 新行政學(New public Administration)에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組織內的인 民主性에 관한 한 私經營組織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른 것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여기서는 公共組織에서의 組織內的 民主性에 관한 몇몇 學者의 見解를 소개하기로 한다.

빌러(R. Biller)는 組織內的 民主性의 基本的 要素로서 ① 自律性(autonomy), ② 相互依存性(interdependence), ③ 個人的 自由(individual freedom), ④ 小數와 多數의 權利(minority and majority rights) 등을 들고 있다.⁽²⁰⁾

왈도(D. Waldo)의 경우엔 組織內的 參與를 組織內的 民主化와 關聯시킨다. 즉 民主主義社

(17) *ibid.*, pp. 161-165.

(18) Warren G. Bennis and Philip E. Slater, *The Temporary Society*, (N.Y.; Harper and Row, 1968), pp. 4-8.

(20) Robert P. Biller, "Adaptation Capacity and Organizational Development," in F. Marini, *Toward a New Public Administration: The Minnowbrook Perspective*, (Seranton; Chandler Publishing Company, 1971)

會에서의 行政組織에서는 指導者를 제외한 下部 成員이 個人的으로 또는 集合的으로 조직내에서의 그들의 權利와 特權 그리고 目標 중 어느 하나나 둘 또는 3者 모두에 관한 決定과 措置에 대해 보다 많은 權限과 自律性(autonomy)을 갖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1) 그리고 이러한 行政參與의 概念은 分權化概念과 관련성을 가지며 양자는 모두 离心的인(centrifugal) 것으로 權限과 權力을 下部指向化(階層制的 意味에서)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自由와 平等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行政參與의 性格을 分權과 自由平等이라는 民主性의 맥락에서 파악하고 있다. (22)

마리니(F. Marini)는 組織內的 民主化의 要素로서 自己實現(self-actualizing)과 開放的이고 솔직한 行爲(open and honest behavior)를 들고 있다. (23)

나. 組織外的 民主性

行政은 經營과는 달리 그것이 公共機關의 活動이라는 점에서 國民 또는 公的 受惠者를 環境變數로서 갖는다 行政에서의 組織外的 民主性이란 바로 이러한 國民 또는 對公的 受惠者와의 關係에서 포착되는 概念이다.

이러한 組織外的 民主性의 問題는 특히 行政權의 擴大強化에 따른 現代行政國家에서의 行政統制的 問題와 2 결되기도 하며, 民主主義에 부응하는 行政의 實現이라는 理念的 問題와 관련되기도 한다. 行政에서의 組織外的인 民主性의 概念이 政治行政-元論의 立場에서 政治的 民主主義와 맥락을 같이 하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行政學에 있어 組織的인 民主性에 對한 체계적인 論義는 1970年代의 新行政學(New Public Administration)의 主唱者들에 의해 본격화 되었음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 여기서는 D. Waldo

와 F. Marini의 見解를 中心으로 組織外的 民主性의 內容을 고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왈도(D. Waldo)의 경우엔 組織外的 參與, 즉 公式的 行政組織 外部에 유지한 受惠者 또는 그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行政組織의 目標의 設定과 計劃의 遂行에 參與하려는 일체의 行爲를 증진 시킴으로써 傳統的 行政組織의 特徵인 權威主義性·階層性·原理原則性·役割의 特定性(role specificity)으로 부터 탈피하여, 民主主義의 目標에 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4)

마리니(F. Marini)의 경우에는 公的 組織의 對 受惠者 關係에서 受惠者에 대한 開放성과 솔직성(openness and honesty toward clients), 그리고 受惠者의 광범한 參與(widespread client participation)를 강조하고 있다. (25)

4. 民主性 概念의 構成要素

지금까지 組織內的 民主性과 組織外的 民主性에 관련된 學者들의 見解를 고찰해 보았다. 이들 學者들의 견해를 토대로하여 本 研究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民主性 概念(組織內的인 것과 外的인 것)의 要素들을 中心으로 概念의 操作化를 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組織內的 民主性의 操作的 定義

- ① 組織內的 參與와 決定에의 參與欲求
- ② 自律的 業務處理
- ③ 自己實現感
- ④ 少數職員意見의 尊重
- ⑤ 個性의 尊重, 相互信賴, 開放性·私的 相互作用(Personal interaction) 등의 人間關係의 重視
- ⑥ 決定權限의 下部委任
- ⑦ 合意에 의한 決定
- ⑧ 變化·刷新·葛藤에 대한 긍정적 活用
- ⑨ 利他的인 意思傳達

(21) Dwight Waldo, "Some Thoughts on Alternatives, Dilemmas and Paradoxes in a Time of Turbulence," in D. Waldo, (ed.), *Public Administration in a Time of Turbulence*, (N. Y.; Chandler Publishing Company, 1971), p. 263.

(22) *Ibid*

(23) F. Marini, "The Linnowbrook Perspective and the Future of Public Administrative Education," in F. Marini (ed.), *op.cit.*, pp. 350-351. (24) Dwight Waldo, *op. cit.*, pp. 350-351.

(24) Dwight Walde, *op. cit.*, p. 263.

(25) Frank Marini, "The Minnowbrook perspective and the Future of public Administrative Education" in F. Marini (ed.), *op.cit.*, pp. 350~351.

- ⑩ 平等性
- ⑪ 他人意見의 尊重
- 2) 組織外的 民主性의 操作的 定義
- ① 組織外的 行政參與
- ② 國民으로부터의 行政權威 發生
- ③ 公務員으로서의 公務員의 役割認知
- ④ 國民에 대한 責任性
- ⑤ 國民에 대한 衡平한 대우
- ⑥ 國民個人的 權利尊重

第Ⅲ章 模型作成과 假說의 定立

第2章에서 論議한 理論의 說明을 토대로 하여 本研究에서의 變數의 設定 및 分析을 위한 模型을 作成하고 本研究의 主된 分析內容이 될 民主性과 效率性에 대한 公務員의 態度에 관한 假說을 定立하면 다음과 같다.

第1節 變數의 設定

民主性과 效率性에 대한 公務員들의 態度에 관한 研究에서 무엇을 變數로 設定하느냐에 對해서는 一律인 解答이 있는 것은 아니다.

本研究의 경우 全體의으로 보면 크게 社會背景의 變數, 組織變數 그리고 效率性과 民主性에 對한 態度의 內的 變數의 세 가지 變數로 나누어진다.

社會背景의 變數는 行政組織에 들어 오기 以前에 個人이 갖는 特性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年齡(A), 教育期間(YE) 主 成長地(GR), 主 成長期의 집안의 經濟的 水準(EL), 父母의 缺損狀態(PC), 주위의 雰圍氣(HA) 등이 包含된다.

組織變數는 어떤 個人이 行政組織에 充員됨으로써 갖게 되는 組織의 特性과 所屬行政組織 自體가 갖는 特性을 의미하는데 組織人的 特性에는 自己役者에 對한 認識(RP), 職種(KW), 在職期間(YS), 職級(R) 등이, 組織 自體가 갖는 特性에는 所屬組織의 法規定的 機能(Fo)과 組織水準이 包含된다.

效率性과 民主性에 대한 態度의 內的 變數라는 것은 分析하고자 하는 態度의 狀態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民主性指向態度의 程度(D), 效率性指向態度의 程度(E), 組織內的 民主性指

向態度의 程度(DI), 組織外的 民主性指向態度의 程度(DE), 效率性指向態度와 民主性指向態度 間의 不調和의 程度(ED), 組織內的 民主性指向態度와 組織外的 民主性指向態度 間의 不調和의 程度(DIE) 등이 包含된다.

그리고 각 變數의 尺度化에 있어, 效率性과 民主性에 對한 態度는 後述하게 될 5點尺度에 의해 相對的 點數로서 表示되며, 나머지 變數들은 分析方法에 따라 各樣한 尺度로 分數尺度化된다.

第2節 分析模型

1. 行政體制의 單純模型

現實의 行政體制는 多樣한 構成要素들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다고 하겠지만, 本研究의 目的上 <圖 3-1>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단순화시켜 把握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즉 全體의으로 보면 行政體制는 行政組織과 受惠者間의 相互作用의 過程으로 볼 수 있으며, 行政組織은 行政官, 業務, 資源, 行政目標 등의 네 가지 要素로 構成되어 行政官이 資源을 동원하여 業務를 수행하고 窮極的으로는 行政目標를 達成하는 過程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行政體制의 構成要素와 要素間의 關係를 바로 本研究에서의 公務員의 態度對象으로 볼 수도 있다.

즉 第2章에서 설명하였듯이 效率性指向態度는 이러한 態度對象 중 특히 行政目標의 達成, 資源의 效率의 活用, 業務의 能率의 遂行등을 對象으로 하며, 民主性指向態度는 組織構成員과 그들간의 相互關係(組織內的 民主性指向態度), 그리고 受惠者로서의 市民 또는 國民 그 自體와 行政組織間의 相互關係(組織外的 民主性指向態度)를 態度對象으로 한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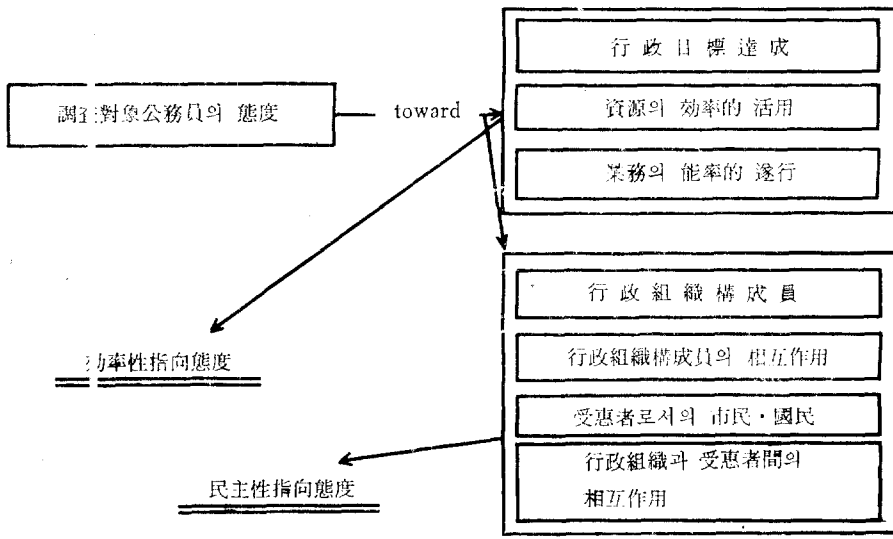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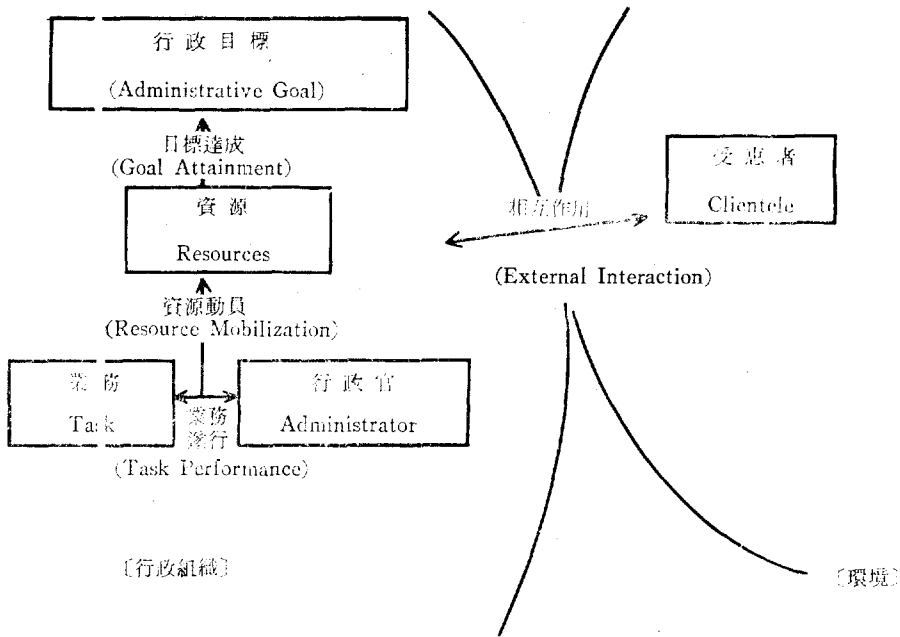
2. 態度의 分析模型

民主性과 效率性에 對한 公務員의 態度는 民主性과 效率性의 內的 變數에 대한 好意性(또는 非好意性)의 程度에 따라 다음의 <圖 3-2>와 같이 상호 包含되어 네 가지의 數型을 도출할 수 있다.

가. 數型 I

效率性에 대한 好意性의 程度가 비교적 높고 民主性에 대한 好意性의 程度도 비교적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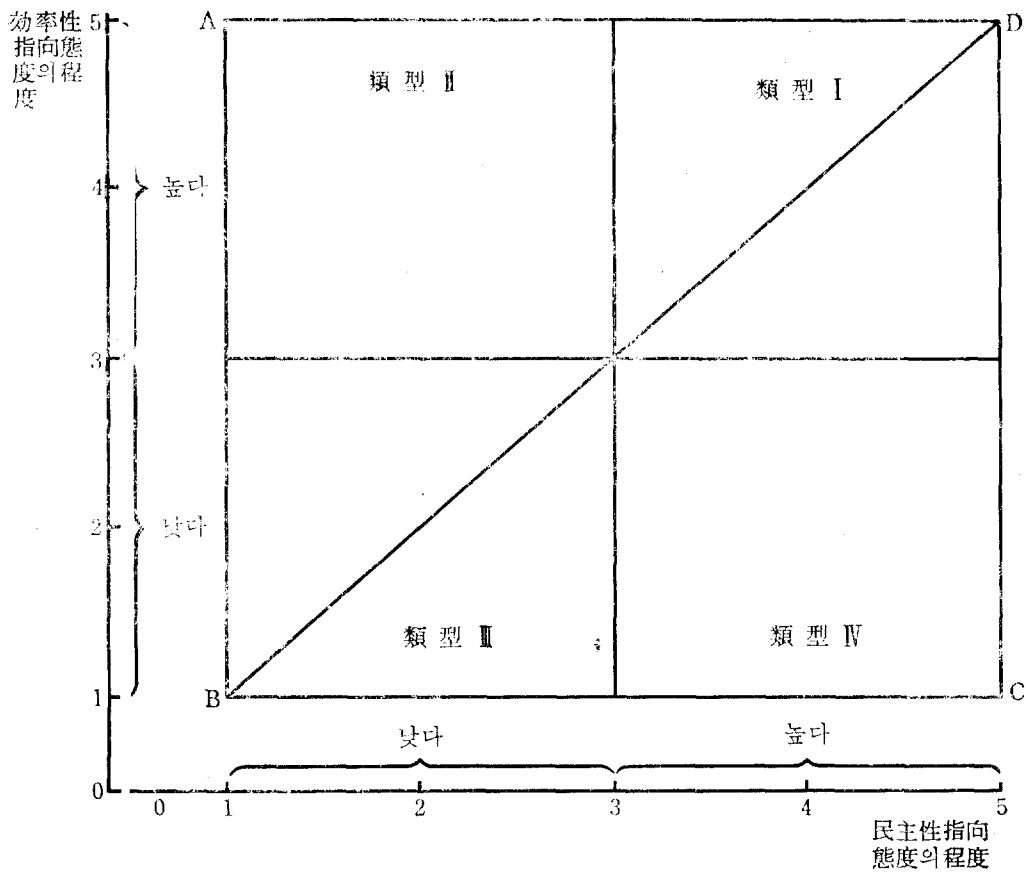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러한 類型의 態度



〈圖 2〉 行政體制單純模型

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効率性指向態度, 즉 本研究의 第2章 第1節에서 설명한 効率性概念의 10가지 構成要素에 대한 好意性의 程度가 비교적 높으며, 동시에 民主性指向態度, 즉 本研究의 第2章 第2節에서 설명한 民主性概念의 17가지(組織內的 民主性 11, 組織外的 民主性: 6)의 構

成要素에 대한 好意性의 程度도 비교적 높다.
 나. 類型 II
 効率性에 對한 好意性의 程度는 비교적 높으나 民主性에 對한 好意性의 程度가 비교적 낮다.
 다시 말해서 앞서 지적한 効率性概念의 構成要素들에 對해서는 비교적 好意的이지만, 組織內·



〈圖 3-2〉 효율성과 민주성에 대한 태도의 분석 모델

外的 민주성으로 구성되는 민주성 개념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비호의적이다.

다. 類型 III

효율성과 민주성에 대한 호의성의 정도가 모두 비교적 낮다.

즉 효율성 개념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도比較的 비호의적이며, 민주성 개념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도 비호의적인 태도를 갖는다.

라. 類型 IV

이 類型은 민주성에 대한 호의성은 비교적 높으나 효율성에 대한 호의성은 비교적 낮은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앞서 지적한 민주성 개념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비교적 호의적이지만 효율성 개념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비호의적인 경우이다.

한편 효율성에 대한 태도와 민주성에 대한 태도 간의 불調和의 상태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는 세 가지의 類型이 이용되는데 〈圖 3-2〉의 △ABC, 類型 i와 直線 BD, 類型 ii 그리고 △BCD, 類型 iii이 그것이다.

즉 類型 i은 효율성에 대한 호의성의 정도가 민주성에 대한 호의성의 정도보다 높은 불調和의 상태이며, 類型 ii는 효율성에 대한 호의성의 정도와 민주성에 대한 호의성의 정도가 동일한 調和 상태이며, 그리고 類型 iii은 민주성에 대한 호의성의 정도가 효율성에 대한 호의성의 정도보다 높은 상태이다.

끝으로 주의를 요하는 것은 여기서의各 태도의 정도, 즉 호의성의 정도는 相對的 區別이라는點이다. 즉 〈圖 3-2〉에 表示되어 있는 數字, 즉 點

數는 그 自己가 絶對的 價値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態度의 程度를 比較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配定한 7 點을 附言해 둔다.

第3節 假說의 定立

本研究의 第Ⅱ章 理論의 背景에 입각하여 效率性과 民主性에 對한 態度에 關連된 變數들 間의 關係를 說明해 주는 假說을 定立하면 다음과 같다.

〈假說 1〉 社會背景의 變數(年齡, 教育程度, 經濟의 水準, 主成長期의 집안의 雰圍氣와 效率性과 民主性에 對한 公務員의 態度間에는 有意한 相關關係가 있을 것이다.

〈假說 2〉 效率性과 民主性에 對한 公務員의 態度는 各 社會背景의 變數間에 差異가 있을 것이다.

〈假說 3〉 效率性과 民主性에 對한 態度와 組織變數(勤務時間, 職級) 間에는 有意한 相關關係가 있을 것이다.

〈假說 4〉 效率性과 民主性에 對한 態度는 各 組織變數間에 差異가 있을 것이다.

〈假說 5〉 效率性과 民主性에 對한 上官의 態度와 部下의 態度間에는 有意한 相關關係가 있을 것이다.⁽¹⁾

〈假說 6〉 效率性에 對한 態度와 民主性에 對한 態度間에는 有意한 相關關係가 있을 것이다.

〈假說 7〉 組織內的 民主性에 對한 態度와 組織

外的 民主性에 對한 態度間에는 有意한 相關關係가 있을 것이다.

〈假說 8〉 組織內的 民主性에 對한 態度와 組織外的 民主性에 對한 態度間의 不調和의 程度와 效率性에 對한 態度間에는 有意한 相關關係가 있을 것이다.

〈假說 9〉 組織內的 民主性에 對한 態度와 組織外的 民主性에 對한 態度間의 不調和의 程度와 效率性에 對한 態度와 民主性에 對한 態度間의 不調和의 程度間에는 有意한 相關關係가 있을 것이다.

第Ⅳ章 調査와 假說檢證 및 類型分析

第1節 尺度의 構成

人間의 態度는 과연 精確하게 測定될 수 있는가에 대해 論者들마다 상이한 見解를 示하고 있지만,⁽¹⁾ 本研究에서는 第Ⅲ章 第1節 分析의 前提에서도 밝혔듯이 態度는 測定이 가능하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尺度를 採擇사용하기로 한다.

즉 T.J. Sergiovanni, R. Metzcus, L. Burden에 의해 開發된 Task person 5 point scales⁽²⁾와 Malpin-Winer Scales,⁽³⁾ 그리고 Bob L. Wynia Scales⁽⁴⁾를 주로 사용하며, 부차적으로 Likert Scales와 Thurstone Scales를 참고한다.⁽⁵⁾

(1) 本研究에 있어 上官이라고 할때에는 원칙적으로는 課長이 되며, 만일 標本 중에 課長이 없으면 是는 標本集團 중 가장 職級이 높은 應答者를 上官으로 定하기로 하며, 나머지를 그 課의 部下 下屬員으로 보기로 한다.

(1) 任宰, 心理測定의 原理, 教育科學新書, 第5卷, (서울: 教育出版社, 1976), pp.14-20; Anne Anstasi, *Psychological Testing*, (N.Y.: Macmillan Publishing Co., 1976), pp.3-22.

(2) T.J. Serigiovanni, R.Metzcus, and L. Burden, "Toward a particularistic Approach to Leadership style: Some Findings," *American Education Research Journal*, Vol. 6, (1960) pp.62-79. reprinted in Bobby R. Patton and Kim Giffin, *Decision-Making Group Interaction* (N.Y.: Harper and Row Publishers, 1978), pp.208-210.

(3) A.V. Halpin and J.Winer, "A Factorial Study of the Leader behavior Description: Its Description," in R.M. Stogdill and A.E. Coons, (eds), *Leader Behavior: Its Description and Measurement*, (Ohio: The Ohio state University Press, 1957), pp.39-51. reprinted in Patton and Giffin, *op. cit.*, pp.210.

(4) Bob L. Wynia, "Federal Bureaucrats Attitudes Toward a Democratic Ideolog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34 No. 2, (March April 1974), pp.156-167.

(5) Thurstone과 Likert의 Scale에 관해서는 Allen E. Edwards and Katherin Llaire Kenney, "A Comparison of the Thurstone and Likert Techniques of Attitude Scale Construc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 30, No. 1, (Feb. 1946), pp.72-83 參照.

그리고 注意性의 程度는 各 文項 모두 전적으로 반대, 그 그렇다, 찬성, 전적으로 찬성 등으로 표현되며, 각각에 대해 1, 2, 3, 4, 5의 相對的 點數를 배정하기로 한다.

本 研究에서 效率性指向態度는 17個 問項과 民主性指向態度는 22個問項(組織內的 民主性 指向態度: 12個問項, 組織外的 民主性指向態度: 6個問項)으로 구성된 척도에 의해 측정되었다.

第 2 節 調查節次와 標本

1. 標本의 選定

本 研究의 調查對象인 서울特別市는 1980年 4月 1日 現在 本廳의 경우 正·副市長을 비롯하여 總 4官 15局 本部 3擔當官 77課 227係, 區廳의 경우 總 17官 區廳에 77局 341課 980係, 그리고 388個洞의 방대한 組織이며, 人力에 있어서도 本廳의 경우만 보아도 1843名이 종사하고 있어, 전

〈表 4-1〉 調查對象課의 機能別分類

組織水準	本 廳	區 (城東區廳)	洞
機能			
秩序維持關係	總務課, 人事課, 行政課, 交通行政課, 監査擔當官	總務課	구의동
財政關係	會計 1課, 2課	財務課	자양 1동
企劃關係	都市計劃 1課, 2課	.	자양 2동
對民關係	保健行政課, 社會課, 福祉課, 市民課	市民奉仕室	
技術關係	建築行政課, 建築指導課	都市整備課, 建築課	
計	1官 14課	1官 4課	3洞

부 조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며, 그럴 필요도 없다. 바로 여기에 要素標本抽出의

〈表 4-3〉 調查對象課와 標本의 配定

調查對象課名	現員 (3級~5級)	小計에 對한 比率 (%)	比率에 對한 標本의 配定	配付된 調査表 數	價値 있는 調査表 數
都市計劃 1課	13	5.2	6	7	6
都市計劃 2課	12	4.8	5	6	5
總務課	21	8.3	10	12	10
人事課	18	7.1	9	11	9
行政課	15	6.0	7	8	8
交通行政課	12	4.8	6	7	6
監員擔當官	12	4.8	6	7	6
會計 1課	18	7.1	9	11	9
會計 2課	13	5.2	6	7	10
保健行政課	14	5.6	7	8	10
社會課	13	5.2	6	7	7
福祉課	13	5.2	6	7	6
市民課	42	16.7	20	22	20
建築行政課	10	4.0	5	6	5
建築指導課	26	10.3	12	14	12
小計	252	100.3	120	140	129
總務課	29	27.6	14	16	14
都市整備課	15	14.3	7	9	7
建築課	13	12.4	6	8	6
市民奉仕室	36	34.3	17	19	18
財務課	12	11.4	6	8	6
小計	105	100.0	50	60	51
자양 1동	23	37.7	10	14	5
자양 2동	19	31.1	10	13	5
구의동	19	31.1	10	13	5
小計	61	99.9	30	40	15
總計	418 (名)	.	200 (名)	240 (部)	.

〈表 4-2〉 調查對象者數와 標本의 分割配定

	總正規現員 (A)	3級~5級現員 (B)	$\frac{B}{A} \times 100$ (%)	調查對象課의 3級~5級現員 (C)	$\frac{C}{B} \times 100$ (%)	$\frac{C}{A} \times 100$ (%)	標本 200名의 分割配定 (F)	調査表 配付 (D)	調査表 回收 (E)	回收率 $\frac{E}{D} \times 100$ (%)
本廳	1 258	1, 236	98.3	252	60.3	20.4	120 60%	140(枚)	129(枚)	92.1
城東區	404	402	99.5	105	25.1	26.1	50 25%	60(枚)	51(枚)	85
3個洞	61	61	100	61	14.6	14.6	30 15%	40(枚)	15(枚)	37.5
計	1 723 (名)	1, 699 (名)	98.6	418 (名)	100%	24.6	200 100%	240(枚)	195(枚)	81.3

意義가 있겠는데⁽⁶⁾ 本研究에서의 調査對象組織과 사람은 앞의 〈表 4-1〉, 〈表 4-2〉, 〈表 4-3〉과 같다.⁽⁷⁾

2. 分析方法

態度에 관한 分析方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本研究에서는 주로 設問紙調査에 의존하며, 被調査者 자신이 직접 記入하게 하며 그 결과에 대한 分析은 本研究의 目的과 假說의 性格에 따라 다음과 같은 分析方法을 사용하고자 한다.

相關關係에 관한 假說檢證을 위해서는 Pearson Correlation 技法(兩側檢證)을 이용하기로 하며 集團間의 差異에 관한 假說檢證을 위해서는 Analysis of Vanance (One way) 技法을 이용하기로 한다. 그리고 態度類型에 대한 分析은 Cross tabulation Scattergram을 이용하기로 하며, 최종적으로 有意한 相關關係를 갖는 變數들에 대한 假說的 函數式을 제시하기로 한다.

假說檢證을 위한 有意水準(significance level)은 慣例에 따라 5%(0.5)로 하기로 하며 檢證方法은 兩側 檢證에 의하기로 하고 各 假說에 대한 檢證은 同一水準에서의 比較를 위해 本廳, 區廳 그리고 全體로 나누어서 하기로 한다.

第 3 節 假說檢證

第Ⅱ章에서 定立한 假說을 그 순서에 따라 檢證하면 다음과 같다.

1. 「假說 1」에 대한 檢證

「假說 1」에 대한 檢證에 있어 歸無假說은 「効率性和 民主性에 대한 態度의 6個의 內的 變數와 社會背景의 變數 중 年齡, 教育期間, 主成長期의 집안의 經濟的 水準, 主成長期의 집안의 雰圍氣 등의 4個 變數는 相關關係가 없을 것이다.」이며 對立假說은 「効率性和 民主性에 대한 態度의 6個의 內的 變數와 그러한 4個의 社會背景의 變數間

〈表 4-4〉 効率性和 民主性에 대한 態도와 年齡間의 關係

相關係數 p.	D	E	DI	DE	ED	DIE
本廳	.0330 .711	-.0912 .304	.0300 .736	.0225 .800	.0034 .969	.0151 .865
區廳	.1317 .357	.0014 .992	.1373 .337	.0694 .629	-.1338 .349	.1308 .469
全體	.0365 .613	-.9317 .660	.0222 .759	.0423 .557	-.0107 .882	-.0050 .945

**p<.0;

〈表 4-5〉 効率性和 民主性에 대한 態도와 教育期間과의 關係

相關係數 p.	D	E	DI	DE	ED	DIE
本廳	-.0122 .891	.2157** .014	-.0329 .711	.0253 .776	.0394 .658	.0488 .583
區廳	-.0925 .518	.1263 .377	-.1327 .353	.0128 .929	-.2687* .057	-.1509 .290
全體	-.0067 .926	.0844 .241	-.0702 .330	.0952 .185	.0596 .408	.1316* .067

*p<.1 **p<.05

(6) Tyro Yamane, Elementary Sampling Theory, (N.J.: Prentice-Hall; Inc., 1967), pp.1-8.

(7) 洞의 경우 원래는 4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조사표가 회수된 것은 15名分 밖에 되지 않아 標本統計의 有意성에 問題가 있어 洞自體의 分析에 있어선 제외하였다.

에는 有意한 相關關係가 있을 것이다」이다.

이에 대한 相關關係 分析의 結果는 다음과 같다.

① 年齡은 <表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效率性和 民主性에 대한 態度的 어떠한 內的 變數와도 有意한 相關關係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教育期間은 <表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本廳의 경우에 한하여 效率性指向態度和 正의 相關($r=.257, p<.05$)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主成長期의 집안의 經濟的 水準은 <表 4-6>에서 보는 것처럼 $p<.05$ 에서는 效率性和 民主性에 대한 態度的 어떠한 內的 變數와도 相關關係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主成長期의 집안의 氛圍氣는 <表 4-7>에서 처럼 $p<.05$ 에서는 效率性和 民主性에 대한 態度的 어떠한 內的 變數와도 相關關係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假說 2」에 대한 檢證

「假說 1」에 대한 檢證에 있어 歸無假設은 「効

率性和 民主性에 대한 態度的 6個 內的 變數는 年齡, 教育期間, 主成長期地主成長期의 집안의 經濟的 水準, 主成長期의 父母의 缺損狀態 主成長期의 집안의 氛圍氣 등의 6個 社會背景의 變數 각각 間에 差異가 없을 것이다.」이며, 對立假設은 「效率性和 民主性에 대한 態度的 6個 內的 變數는 그러한 6個의 社會背景의 變數 각각 間에 差異가 있을 것이다」이다.

이에 대한 社會背景의 變數別 F-檢證의 結果는 다음과 같다.

가. 年齡別 F-檢證

年齡別 差異分析의 結果는 <表 4-8>과 같다.

즉 本廳의 경우에는 效率性和 民主性에 대한 態도는 年齡間에 意味한 차이가 없으며, 區廳의 경우에는 民主性指向態度的 程度와 組織外的 民主性指向態度的 程度가, 全體의 경우에는 區廳의 두 가지와 組織內的 民主性指向態度的 程度가 年齡間에 意味한 差異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나. 教育期間別 F-檢證

表 4-6) 效率性和 民主性에 대한 態度和 主成長期의 집안의 經濟的 水準과의 關係

相關係數 p.	D	E	DI	DE	ED	DIE
本 廳	-.1122	.1461*	-.1352	-.0253	-.0740	-.1174
	.206	.099	.127	.776	.405	.185
區 廳	-.1498	.1015	-.1362	-.1190	.2222	-.0673
	.294	.479	.354	.406	.117	.639
全 體	-.0965	.0907	-.1214	-.0142	.0596	.1316*
	.180	.207	.091	.844	.408	.067

* $p < .1$

表 4-7) 效率性和 民主性에 대한 態度和 主成長期 집안의 氛圍氣와의 關係

相關係數 p.	D	E	DI	DE	ED	DIE
本 廳	-.0240	-.0679	.0490	-.1247	-.0144	.1289
	.787	.444	.582	.159	.872	.145
區 廳	-.0492	.1429	-.0040	-.1061	-.0333	.0629
	.732	.317	.978	.459	.816	.661
全 體	-.0393	.0242	.0260	-.1233*	-.0097	.1054
	.585	.737	.718	.086	.893	.142

* $p < .1$.

〈表 4-8〉 効率性과 民主性에 대한 態度的 年齡別 差異分析結果

F RATIO (B. df, W. c. f) SIG.		D	E	DI	DE	ED	DIE
本	廳	1.3846 (3, 125)	1.3240 (3, 125)	1.7061 (3, 125)	.7218 (3, 125)	.2890 (3, 125)	1.4480 (3, 125)
		.2506	.2696	.1692	.5408	.8333	.2321
區	廳	5.0975*** (3, 47)	.9497 (3, 47)	3.0287 (3, 47)	4.3101*** (3, 47)	5.9965 (3, 47)	.4565 (3, 47)
		.0039	.4243	.0385	.0091	.0015	.7140
全	體	3.7225** (3, 191)	.5338 (3, 191)	2.9289** (3, 191)	3.7096** (3, 191)	2.0522 (3, 191)	2.1368 (3, 191)
		.0124	.6597	.0349	.0126	.1080	.0970

*p<.1 **p<.05 ***p<.01

〈表 4-9〉 効率性과 民主性에 대한 態度的 教育期間別 差異分析結果

F RATIO (B. df, W. c. f) SIG.		D	E	DI	DE	ED	DIE
本	廳	.1807 (3, 125)	1.1697 (3, 125)	.1213 (3, 125)	1.5994 (3, 125)	.3173 (3, 125)	1.2328 (3, 125)
		.9093	.3241	.9474	.1929	.8128	.3007
區	廳	.4051 (3, 47)	.4930 (3, 47)	.2344 (3, 47)	.7238 (3, 47)	1.0786 (3, 47)	.2578 (3, 47)
		.7500	.6889	.8720	.5429	.3673	.8554
全	體	.1869 (3, 191)	.4390 (3, 191)	.2731 (3, 191)	2.3383* (3, 191)	.8545 (3, 191)	2.1427* (3, 191)
		.9052	.7253	.8448	.0749	.4658	.0962

*p<.1

〈表 4-9〉에 보는 것처럼 p<.05에서는 効率性과 民主性에 대한 態도는 教育期間 間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主成長地別 F-檢證

〈表 4-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効率性과 民主性에 대한 態도의 대부분의 內的 變數는 主成長地間에 차이가 없지만 組織內的 民主性指向態도와 組織外的 民主性指向態度 間의 不調化에 한하여 本廳의 경우 主成長地別로 有意한 差異를 나타낸다.

라. 主成長期의 집안의 經濟的 水準別 F-檢證

〈表 4-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p<.05에서는 効率性과 民主性에 대한 態도의 內的 變數는 主成長期의 집안의 經濟的 水準間에 有意한 差異가 없다.

마. 父母의 缺損狀態別 F-檢證

〈表 4-12〉에서 보는 것처럼 p<.05에서는 効率性과 民主性에 대한 態도의 어떠한 內的 變數도 父母의 缺損狀態間에 有意한 差異없다.

바. 主成長期의 집안의 雰圍氣別 F-檢證

〈表 4-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p<.05에서는 効率性과 民主性에 대한 態도의 어떠한 內的 變數도 主成長期의 집안의 雰圍氣間에 差異가 나타나지 않는다.

3. 「假說 3」에 대한 檢證

「假說 3」에 대한 檢證에 있어 歸無假說은 「効率性과 民主性에 대한 態도의 6個 內的 變數와 勤務期間과 職級 등의 2個 組織變數間에는 相關關係가 없을 것이다」이며, 對立假說은 「効率性과 民主性에 대한 態도의 6個 內的 變數와 그러한

〈表 4-10〉 効率性과 民主性에 대한 態度的 主成長地別 差異分析結果

F. RATIO (B. df, W. df) SIG.	D	E	DI	DE	ED	DIE
本 廳	1.3520 (2, 126)	.0454 (2, 126)	2.9806* (2, 126)	.2129 (2, 126)	.9215 (2, 126)	3.5659** (2, 126)
	.2624	.9556	.0544	.8085	.4006	.0312
區 廳	1.3153 (3, 47)	1.2869 (3, 47)	1.2473 (3, 47)	.5772 (3, 47)	.3721 (3, 47)	.2578 (3, 47)
	.2806	.2898	.3033	.6329	.7735	.8554
全 體	.6181 (3, 191)	1.2711 (3, 191)	1.3134 (3, 191)	.1588 (3, 191)	1.4226 (3, 191)	1.6324 (3, 191)
	.6041	.2856	.2713	.9239	.2375	.1833

* p < .1 ** p < .05

〈表 4-11〉 効率性과 民主性에 대한 態度的 主成長期 집안의 經濟的 水準別 差異分析結果

F. RATIO (B. df, W. df) SIG.	D	E	DI	DE	ED	DIE
本 廳	1.0109 (2, 126)	2.9174* (2, 126)	1.0089 (2, 126)	.3442 (2, 126)	1.2470 (2, 126)	.4509 (2, 126)
	.3668	.0577	.3675	.7094	.2909	.6381
區 廳	1.2019 (1, 49)	.8379 (1, 49)	.6868 (1, 49)	1.2186 (1, 49)	1.3629 (1, 49)	.0379 (1, 49)
	.2783	.5363	.4113	.2750	.2487	.8464
全 體	1.0821 (2, 192)	1.5152 (2, 192)	1.0761 (2, 192)	.6090 (2, 192)	.1017 (2, 192)	.6778 (2, 192)
	.3410	.2224	.3430	.5449	.9033	.5089

* p < .1

〈表 4-12〉 効率性과 民主性에 대한 態度的 父母缺損狀態別 差異分析結果

F. RATIO (B. df, W. df) SIG.	D	E	DI	DE	ED	DIE
本 廳	.6961 (4, 124)	.1662 (4, 124)	.4969 (4, 124)	1.5470 (4, 124)	.3518 (4, 124)	.9970 (4, 124)
	.5960	.9552	.7380	.1927	.8424	.4119
區 廳	.9383 (4, 48)	.2535 (2, 48)	1.0714 (2, 48)	.7381 (2, 48)	.2007 (2, 48)	.3052 (2, 48)
	.3983	.7771	.3941	.4833	.8188	.7384
洞	4.0929* (1, 13)	.0201 (1, 13)	1.1604 (1, 13)	3.9000* (1, 13)	.4972 (1, 13)	.0077 (1, 13)
	.0641	.8895	.3010	.0699	.4932	.9315
全 體	.9035 (4, 190)	.2829 (4, 190)	7.552 (4, 190)	1.2523 (4, 190)	.1871 (4, 190)	.8918 (4, 190)
	.4630	.8888	.5557	.2904	.9449	.4699

* p < .1

〈表 4-13〉 効率성과 民主性에 대한 態度的 主成長期 집단 雰圍氣別 差異分析結果

F. RATIO (B. fd, W. df)	SIG.	D	E	DI	DE	ED	DIE
市 廳		.7123 (3, 125)	.8998 (3, 125)	1.2972 (3, 125)	.6626 (3, 125)	.1307 (3, 125)	1.8275 (3, 125)
		.5464	.4434	.2784	.5766	.9377	.1455
區 廳		.4017 (3, 47)	.3650 (3, 47)	.4647 (3, 47)	.6844 (3, 47)	.1794 (3, 47)	.7786 (3, 47)
		.7524	.7786	.7083	.5660	.9098	.5118
洞		.7864 (3, 11)	.2770 (3, 11)	1.5204 (3, 11)	.2522 (3, 11)	2.0580 (3, 11)	1.4114 (3, 11)
		.5262	.8409	.2639	.8582	.1641	.2916
全 體		1.2025 (3, 191)	.1739 (3, 191)	1.8766 (3, 191)	1.1343 (3, 191)	.1797 (3, 191)	2.5120* (3, 191)
		.3101	.9139	.1349	.3364	.9101	.0599

*p<.1

〈表 4-14〉 効率성과 民主性에 대한 態도와 在職期間과의 關係

相 關 係 數 p.	D	E	DI	DE	ED	DIE
本 廳	-.1976 .025**	.0856 .335	-.2516*** .004	-.2040 .787	.0382 .668	-.2333*** .008
	.1723 .227	-.1062 .458	.1169 .414	.1973 .165	-.881 .539	-.0813 .571
全 體	-.0871 .226	-.0256 .722	-.1694** .018	.0805 .263	-.0281 .697	-.2216*** .002

p<.0 *p<.01

2個의 組織變數 間에 相關關係가 있을 것이다」가 된다.

이에 대한 相關關係分析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在職期間은 〈表 4-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本廳의 경우 民主性指向態도의 有意한 負의 相關($r = -.1976, p < .05$)을, 組織內的 民主性指向態度와도 有意한 負의 相關($r = -.2516, p < .01$)을 組織內的 民主性과 組織外的 民主性間의 不調化와도 有意한 負의 相關($r = -.2383, p < .01$)을 갖는다. 區廳의 경우에서는 有意한 相關關係가 없으며, 全體의 경우는 組織內的 民主性指向態度와 負의 相關($r = -.1694, p < .05$)을, 組織內的 民主性指向態度와 組織外的 民主性指向態도의 不調化와 有意한 負의 相關($r = -.2216, p < .01$)을 맺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職級은 〈表 4-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本廳의 경우 効率性指向態度와 有意한 正의 相關($r = .1982, p < .05$), 組織內的 民主性指向態度와는 有意한 負의 相關($r = -.1946, p < .05$), 組織內的 民主性指向態度와 組織外的 民主性指向態度間의 不調化와 有意한 負의 相關($r = -.221, p < .01$)을 맺고 있다. 區廳의 경우엔 有意한 相關이 없으며, 全體의 으로는 組織外的 民主性指向態度와 有意한 相關($r = .1769, p < .05$), 組織內的 民主性指向態度와 組織外的 民主性指向態度間의 不調化와 有意한 負의 相關($r = -.2187, p < .01$)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假說 4」에 대한 檢證

〈表 4-15〉 効率性과 民主性에 대한 態度와 職級間의 關係

相 關 係 數 p.	D	E	DI	DE	ED	DIE
本 廳	-.1217	.1982**	-.1946**	.0460	.0371	-.2221**
	.169	.024	.027	.605	.676	.011
區 廳	.1723	-.1062	.1169	.1973	-.1232	.0008
	.227	.458	.414	.165	.389	.996
洞	-.3773	.0175	-.5435**	.1228	.3505	-.5370**
	.166	.950	.036	.663	.200	.039
全 體	.0067	-.0126	-.1046	.1769**	-.0675	-.2187***
	.926	.861	.146	.013	.349	.002

p<.05 *p<.01

〈表 4-16〉 効率性과 民主性에 대한 法規定的 機能別 差異分析

F. RATIO (B. df, W df) SIG.	D	E	DI	DE	ED	DIE
本 廳	.3688 (4, 124)	.7461 (4, 124)	.1069 (4, 124)	1.2000 (4, 124)	.4532 (4, 124)	.5275 (4, 124)
	.8305	.5624	.9799	.3142	.7699	.7157
區 廳	.1264 (3, 47)	1.1424 (3, 47)	.1576 (3, 47)	.4993 (3, 47)	.1292 (3, 47)	.4997 (3, 47)
	.9440	.3418	.9242	.6846	.9423	.6843
全 體	.4341 (4, 175)	.9280 (4, 175)	.1593 (4, 175)	1.5296 (4, 175)	.5871 (4, 175)	.7615 (4, 175)
	.7839	.4490	.9586	.1956	.6724	.5517

〈表 4-17〉 効率性과 民主性에 대한 態度의 自己役割認識別 差異分析結果

F. RATIO (B. df, W df) SIG.	D	E	DI	DE	ED	DIE
本 廳	.4578 (5, 123)	1.7347 (5, 123)	.5145 (5, 123)	.5232 (5, 123)	.1771 (5, 123)	.6237 (5, 123)
	.8069	.1316	.7649	.7584	.9707	.6820
區 廳	.2569 (4, 46)	.7749 (4, 46)	.4854 (4, 46)	.2186 (4, 46)	.4842 (4, 46)	.7660 (4, 46)
	.9039	.5472	.7463	.9267	.2225	.5529
全 體	.4653 (5, 189)	.9460 (5, 189)	.5840 (5, 189)	.8907 (5, 189)	.6663 (5, 189)	1.0608 (5, 189)
	.8018	.4525	.7122	.4884	.6495	.3836

「假說 4 에 대한 檢證에 있어 歸無假說은 「効率性과 民主性에 대한 態度의 6個 內的 變數가 所屬課의 法規定的 機能, 自己役割認識, 職種, 組

織水準, 在職期間 등의 6個 組織變數 각각 間에 差異가 없다」이며, 對立假說은 「効率性과 民主性에 대한 態度의 6個 內的 變數가 그러한 6個 組

〈表 4-18〉 効率성과 民主性에 대한 態度的 職種別 差異分析結果

F. RATIO (B. df, W. lf)	SIG.	D	E	DI	DE	ED	DIE
本 廳		.3046 (1, 127)	1.2699 (1, 127)	.0351 (1, 127)	.7361 (1, 127)	.0558 (1, 127)	.1347 (1, 127)
		.5820	.2619	.8517	.3925	.8136	.7124
區 廳		.4063 (1, 49)	.1947 (1, 49)	.0422 (1, 49)	1.2624 (1, 49)	.3021 (1, 49)	.2333 (1, 49)
		.5268	.6610	.8380	.2667	.5851	.6313
全 體		.0081 (1, 193)	.1773 (1, 193)	.0006 (1, 193)	.0519 (1, 193)	.4051 (1, 193)	.0293 (1, 193)
		.9283	.6741	.9806	.8201	.5252	.8644

〈表 4-19〉 効率성과 民主性에 대한 態度的 組織水準別 差異分析結果

	D	E	DI	DE	ED	DIE
F. RATIO	.7545	2.7118*	.0239	3.6863**	2.5944*	1.6420
B. df, W. d.	2, 192	2, 192	2, 192	2, 192	2, 192	2, 192
SIG.	.4717	.0690	.9763	.0269	.0773	.1963

*p<.1 **p<.05

〈表 4-20〉 効率성과 民主性에 대한 態度的 在職期間別 差異分析結果

F. RATIO (B. df, W. lf)	SIG.	D	E	DI	DE	ED	DIE
本 廳		3.3065** (2, 126)	.0341 (2, 126)	6.0985*** (2, 126)	.0069 (2, 126)	.3365 (2, 126)	5.7398*** (2, 126)
		.0398	.9664	.0030	.9931	.7149	.0041
區 廳		2.1306 (2, 48)	.9122 (2, 48)	1.5729 (2, 48)	1.5476 (2, 48)	1.6859 (2, 48)	.4482 (2, 48)
		.1299	.4085	.2179	.2232	.1961	.6414
全 體		1.9100 (2, 192)	.5397 (2, 192)	4.1831** (2, 192)	1.3083 (2, 192)	.9501 (2, 192)	6.0381*** (2, 192)
		.1509	.5838	.0167	.2727	.3885	.0029

p<.05 *p<.01

組織變數 각각 間에 差異가 있다」가 된다.

이러한 假說에 대한 組織變數別 F-檢證은 다음과 같다.

가. 所屬課의 法規定的 機能別 F-檢證

〈表 4-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効率성과 民主性에 대한 態度的 6個 內的 變數 중 어떠한 것도 所屬課의 性規定的 機能間에 有意한 差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自己役割認識別 F-檢證

〈表 4-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効率성과 民主性에 대한 態度的 6個 內的 變數 모두에 有意한 差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職種別 F-檢證

〈表 4-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効率성과 民主性에 대한 態度的 6個 內的 變數 중 어떤 것도 職種間에 有意한 差異를 나타내지 않는다.

〈表 4-21〉 効率성과 민주성에 대한態도의 職級別 差異分析結果

F. RATI) (B. df, W. df) SIG.	D	E	DI	DE	ED	DIE
本 廳	5.0352*** (5, 123) .0003	1.2719 (5, 123) .2803	4.4954*** (5, 123) .0008	3.9838*** (5, 123) .0022	.3782 (5, 123) .8629	3.1768*** (5, 123) .0099
區 廳	1.2559 (4, 46) .3010	2.6375** (4, 46) .0458	.9487 (4, 46) .4446	.9350 (4, 46) .4521	1.6215 (4, 46) .1849	.2347 (4, 46) .6532
全 體	2.9636** (5, 189) .0134	1.8225 (5, 189) .1103	2.0005* (5, 189) .0840	4.7543*** (5, 189) .0004	.4693 (5, 189) .7988	2.4111** (5, 189) .0379

*p<.1 **p<.05 ***p<.01

〈表 4-22〉 効率성과 민주성에 대한 上官의 態도와 部下의 態度間의 關係(全體)

部 下	上 官	D	E	DI	DE	ED	DIE
D		-.2965 .192	.0733 .739	-.3052 .178	-.1937 .400	.2410 .293	-.2224 .333
E		.1168 .614	.1979 .390	.2127 .355	-.0750 .747	.0154 .947	.3078 .175
II		-.3249 .151	-.2596 .256	-.3666 .102	-.1596 .490	.0977 .674	-.3203 .157
IE		-.1807 .433	.3840 .086*	-.1545 .504	-.1696 .462	.3095 .172	-.0606 .794
ID		.2805 .218	.0629 .787	.3439 .127	.0932 .688	-.1623 .482	.3415 .130
IEE		-.1315 .570	-.6117*** .003	-.1958 .395	.0129 .956	-.2051 .372	-.2424 .290

註: 各 cell의 윗칸은 相關係數, 아랫칸은 p-를 의미함.

*p<.1 ***p<.01

라. 組織水準別 F-檢證

効率성과 민주성에 대한 態도의 6個 變數의 組織水準別 差異檢證의 결과는 〈表 4-19〉과 같다.

p<.05에서 組織水準間에 有意한 差異를 나타낸 것은 組織外的 民主性指向態度로 나타났다.

마. 在職期間別 F-檢證

効率성과 민주성에 대한 態도의 6個 內的 變數의 在職期間別 差異分析의 결과는 다음의 〈表 4-20〉과 같다.

즉 民主性指向態度의 程度는 本廳에서, 組織內的 民主性指向態度의 程度는 本廳과 全體에서,

組織內的 民主性指向態度와 組織外的 民主性指向態度間의 不調和의 程度는 本廳과 全體의 경우 在職期間間에 有意味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 職級別 F-檢證

効率성과 민주성에 대한 態도의 6個 內的 變數와 職級間의 差異分材의 결과는 다음의 〈表 4-21〉과 같다.

즉 民主性指向態度의 程度, 組織外的 民主性指向態度의 程度, 組織內的 民主性指向態度와 組織外的 民主性指向態度間의 不調和의 程度는 本廳과

〈表 4-23〉 効率성과 민주성에 대한 上官의 態도와 部下의 態度間的 關係(本廳)

部 下	上 官	D	E	DI	DE	ED	DIE
D		-.1079	-.0272	-.0505	-.1590	.0706	.0603
		.726	.930	.870	.604	.819	.845
E		.0259	-.0898	-.0566	.1427	-.0665	-.1681
		.933	.770	.854	.642	.829	.583
DI		-.1237	-.4766*	-.1387	-.0593	-.1482	-.1115
		.687	.100	.651	.847	.629	.717
DE		-.0653	.3813	.0616	-.2061	.2473	.1978
		.832	.199	.893	.499	.415	.517
ED		.1292	-.0268	.1081	.2547	-.1150	-.1668
		.674	.931	.953	.401	.708	.586
DIE		-.0466	-.8321***	-.1707	.1579	-.3915	-.3066
		.88	.001	.577	.606	.186	.308

註: 各 cell의 윗칸은 相關係數, 아랫칸은 p.를 의미함. *p<.1 ***p<.01

〈表 4-24〉 効率성과 민주성에 대한 上官의 態도와 部下의 態度間的 關係(區廳)

部 下	上 官	D	E	DI	DE	ED	DIE
D		-.4736	.0131	-.4852	-.3826	-.3171	-.2646
		.420	.983	.407	.525	.603	.667
E		.1167	.4168	.3285	-.1709	.1004	.6667
		.852	.485	.589	.783	.872	.219
DI		-.6568	.1046	-.6909	-.5081	.4765	-.4176
		.229	.867	.197	.382	.417	.484
DE		.1915	-.2314	.2423	.0961	-.2243	.2397
		.758	.708	.695	.878	.717	.698
ED		.2949	.2361	.4236	.0839	-.0936	.5145
		.630	.702	.477	.893	.881	.375
DIE		-.8296*	.2194	-.8900**	-.6193	.6390	-.5788
		.082	.723	.043	.265	.246	.307

註: 各 cell의 윗칸은 相關係數, 아랫칸은 p.임. *p<.1 **p<.05

全體에서, 効率性指向態度는 區廳에서, 組織內的 民主性指向態度는 本廳에 한해서 職級間에 有意 意味한 差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假說 5」에 대한 檢證

「假說 5」에 대한 檢證에 있어 歸無假說은 「効率性和 民主性에 대한 上官의 態도의 6個 內的 變數와 効率性和 民主性에 대한 部下의 態도의

6個 變數間에 有意한 相關關係가 없을 것이다」이며, 對立假說은 効率性和 民主性에 대한 上官의 態도의 6個 變數와 効率性和 民主性에 대한 部下의 態도의 6個 變數間에 有意한 相關關係가 있을 것이다」가 된다.

이에 대한 檢證을 全體와 組織水準別로 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全體

全體的으로 보던 <表 4-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上司의 效率性指向態도와 部下の 組織內的 民主性指向態도와 組織外的 民主性指向態度間의 不調和와의 相關關係만이 有意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것은 負의 相關이었다. ($r = -.6117, p < .01$).

나.本廳

本廳의 경우에도 <表 4-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上司의 效率性指向態도와 部下の 組織內的 民主性指向態도와 組織外的 民主性指向態度間의 不調和와의 相關關係만이 有意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것은 負의 相關이었다. ($r = -.8321, p < .01$).

다.區廳

區廳의 경우에는 <表 4-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上司의 組織內的 民主性指向態도와 部下の 組織內的 民主性指向態도와 組織外的 民主性指向態度間의 不調和와의 相關關係만이 有意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相關은 負의 相關이었다. ($r = -.8900, p < .05$).

6. 「假說 6」에 대한 檢證

「假說 6」에 대한 檢證에 있어서 歸無假說은 「效率性指向態도와 民主性指向態度間에는 有意한 相關이 있을 것이다」이며, 對立假說은 「兩者間에 有意한 相關이 있을 것이다」가 된다.

이에 대한 相關關係分析의 결과는 다음의 <表 4-25>와 같은데, 區廳과 全體에 있어서 兩者가 有意한 負의 相關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區廳... $r = -.3031, p < .05$; 全體... $r = -.2193,$

<表 4-25> 效率性導向態도와 民主性指向態度와의 關係

	相 關 係 數 p.
本 廳	-.1434 .105
區 廳	-.3031** .031
全 體	-.2193*** .002

** $p < .5$ *** $p < .01$

$p < .002$).

7. 「假說 7」에 대한 檢證

「假說 7」에 대한 檢證에 있어 歸無假說은 「組織內的 民主性指向態도와 組織外的 民主性指向態度間에 有意한 相關關係가 없을 것이다」이며, 對立假說은 「兩者間에 有意한 相關이 있을 것이다」가 된다.

이에 대한 相關關係分析의 결과는 <表 4-26>와 같은데, 洞을 제외하고는 모두 有意한 正的 相關을 맺고 있다. (本廳... $r = .3088, p < .01$; 區廳... $r = .4100, p < .01$; 全體... $r = .3246, p < .01$).

<表 4-26> 組織內的 民主性指向態도와 의 關係

	相 關 係 數 p.
本 廳	.3088*** .001
區 廳	.4100*** .003
全 體	.3246*** .001

*** $p < .01$

8. 「假說 8」에 대한 檢證

「假說 8」에 대한 檢證에 있어서 歸無假說은 「組織內的 民主性과 組織外的 民主性間의 不調和와 效率性指向態度間에는 有意한 相關關係가 없을 것이다」이며, 對立假說은 「兩者間에는 有意한 相關關係가 있을 것이다」가 된다.

이에 대한 相關關係分析의 결과는 <表 4-27>과 같은데, $p < .05$ 에서는 兩者間에 有意한 相關關係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9. 「假說 9」에 대한 檢證

「假說 9」에 대한 檢證에 있어서 歸無假說은 「組織內的 民主性指向態도와 組織外的 民主性指向態度間의 不調和와 效率性指向態도와 民主性指向態度間의 不調和間에는 有意味한 相關關係가 없을 것이다」이며, 對立假說은 「兩者間에는 有意한 關係가 있을 것이다」가 된다.

이에 대한 相關關係分析의 결과는 <表 4-28>과 같은데, 區廳의 경우에 한해서만 兩者間에 有意한 負의 相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4353, p < .01$).

〈表 4-27〉 組織內的 民主性和 組織外的 民主性間의 不調和와 效率性指向態度間의 關係

	相 關 係 數 p.
本 廳	-.0272 .760
區 廳	.0704 .624
全 體	.0245 .734

*p < .1

〈表 4-28〉 組織內的 民主性指向態도와 組織外的 民主性指向態度間의 不調和와 效率性指向態도와 民主性指向態度間의 不調和의 關係

	相 關 係 數 p.
本 廳	.1099 .215
區 廳	-.4353*** .001
全 體	-.0963 .181

***p < .01

第 4 節 效率性和 民主性에 對한 態度의 類型分析

本 論文 Ⅲ 第章에서 언급한 態度類型의 分析模型에 입각하여 調查對象公務員의 效率性和 民主性에 對한 態度의 類型을 分析하면 다음과 같다.

1. 效率性指向態도와 民主性指向態도의 統合模型

〈圖4-1〉에서 알 수 있듯이 類型I에 속한 경우가 94名(48.3%), 類型II는 100名(51.3%), 類型III은 1名(0.5%)로 나타났으며, 類型IV에 속하고 있는 경우는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分布는 本廳과 區廳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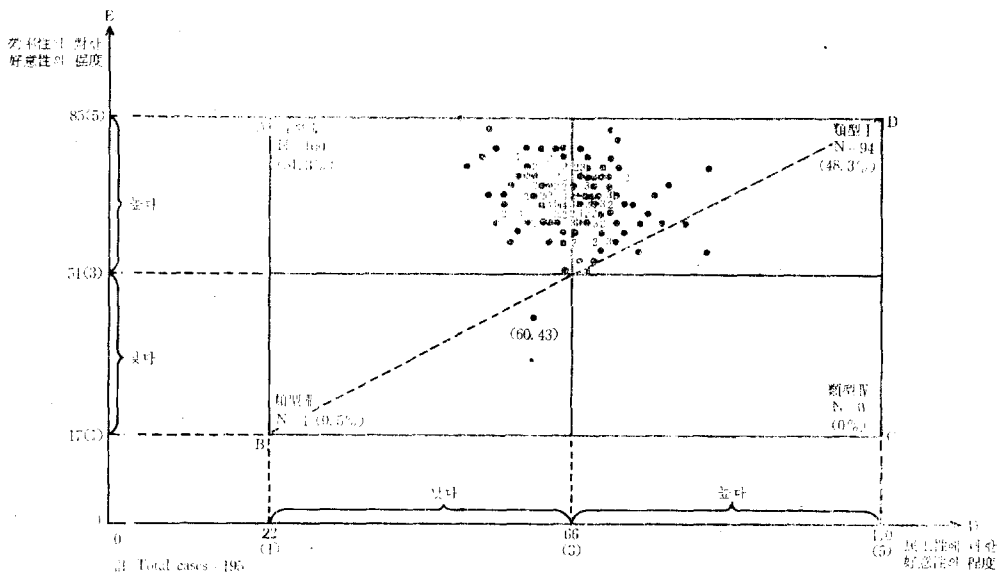
2. 效率性指向態도와 民主性指向態度間의 不調和의 類型

〈表 4-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類型 i」(E<D)이 압도적으로 많으며(190名, 97.4%), 「類型 ii」(E=D)는 전혀 없고, 「類型 iii」(E>D)은 5名(2.6%)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순위는 本廳과 區廳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第 V 章 結論：假說的 函數式의 提示

지금까지의 分析에 입각해 볼때는 民主性과 効



〈圖 4-1〉 效率性和 民主性에 對한 態度의 複合類型 分析結果(全體)

〈表 4-29〉 民主性和 效率性에 대한 態度的 不調和 類型(全體)

	類型 i	類型 ii	類型 iii
該 當 者 數	190	0	5
%	97.4	0	2.6
順 位	1	3	2

率性에 대한 現 서울特別市 行政擔當者의 態度는 社會背景의 變數로서의 年齡, 組織變數로서의 在職期間 등, 函數關係에 있다고 추론할 수 있겠는데, 本 研究는 앞서 研究範圍에서도 밝혔듯이 어디까지나 民主性和 效率性에 대한 公務員들의 態度에의 2-원 關聯變數의 把握과 實驗分析에 研究의 焦點이 있었고 또한 主觀性이 농후한 人間心理에 대한 지나친 數式化에 따르는 理論의 無理를 최소화하기 위해 重多回歸 分析을 통한 그러한 變數들간의 函數式의 상세한 導出과 그를 통한 豫測의 論外로 하며 本 研究에서는 단지 相關關係 分析의 結果에 基礎하여 假說的 函數關係, 즉 어떤 變數들이 函數式을 構成할 수 있겠는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으로써 結論을 맺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分析에서 보는 바와 같이 效率性和 民主性에 대한 態度的 內的 變數와 年齡, 在職期間, 職級은 組織水準別로 各各 상이하게 有意한 相關關係를 맺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變數들間

의 函數式도 組織水準別로 相異하게 나타날 것이 다. 따라서 函數式의 形態는 線型이라는 假定下에 有意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函數式을 組織水準別(區廳의 경우에는 有意한 相關關係를 갖는 變數가 $p < .05$ 에서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제외)로 提示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사용하는 略字는 本 研究의 第 Ⅲ 章 第 2 節 「變數의 設定」에서 定한 것에 따르기로 한다.

$$\left[\begin{array}{l} **p \leq .05 \\ ***p \leq .01 \\ r_{A,B}: A와 B의 相關係數 \end{array} \right]$$

1. 本廳

① $D = a + a_1YS$ ($r_{D,YS} = -.19759^{**}$)

② $E = b + b_1YE$ ($r_{E,YE} = .21575^{**}$)

③ $DI = c + c_1YS + c_2R$ $\left[\begin{array}{l} r_{DI,YS} = -.25157^{***} \\ r_{DI,R} = -.19461^{***} \\ r_{YS,R} = .48985^{***} \end{array} \right]$

④ $DIE = d + d_1YS + d_2R$ $\left[\begin{array}{l} r_{DIE,YS} = -.23328^{***} \\ r_{DIE,R} = -.22208^{**} \\ r_{YS,R} = .48985^{***} \end{array} \right]$

2. 全體

① $DE = i + i_1R$ ($r_{DE,R} = .17693^{**}$)

② $DIE = j + j_1YS + j_2R$ $\left[\begin{array}{l} r_{DIE,YS} = -.22163^{***} \\ r_{DIE,R} = -.21867^{**} \\ r_{YS,R} = .60187^{***} \end{array} \right]$

끝으로 이러한 假說的 函數式에 대한 理論的 論議가 活潑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